

지구촌 양계뉴스

일본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선언

일본정부가 OIE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월 13일 발생이후 여러 차례 발생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종식되어 2007년 5월 8일부로 OIE규정에 따라 일본이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임을 선언했다.

마지막 발생농장의 모든 가금류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2월 7일부로 완결되었다.

한편 예방접종에 대한 가능성은 규정상 열어놓았으나 현재까지 예방접종 불허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에 한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종전과 다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미국

옥수수價 급등으로 가축 사료도 변화

미국 내 대체에너지 개발 붐으로 사료용 옥수수 값이 급등하면서 소나 돼지 등 가축들의 '밥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저널은 가장 이상적인 가축 사료는 옥수수가 70% 들어간 혼합물이지만 바이오 연료 생산이 확대되면서 옥수수 값이 올라가자 축산농가들이 옥수수 대신 과자류나 식품업체에서 불량품으로 나오는 견과류나 사탕, 초콜릿 등을 사료에 섞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농부들은 인근 포도와 감귤 밭에서 나오는 포도껍질과 레몬 펄프를 사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다호주의 목축업자들은 조리되지 않은 프렌치 프라이를 사료용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콜릿 제조업체인 허쉬는 초콜릿 과자 제조후 남은 코코아와 외플 찌꺼기를 농부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라면 제조업체인 니신식품은 라면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음식재료를 역시 농부들에게 사료용으로 팔고 있다.

저널은 예전부터도 옥수수 생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견과류나 과자류 등을 사료로 사용해 왔지만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이제는 이같은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식품업체에서 나온 불량품을 구매해 축산업자나 농부들에게 공급하는 중간업자까지 등장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 뉴욕=연합뉴스



EU

브로일러의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합의

EU는 지난 5월 7일 브로일러의 사육방법에 관해 새로운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유럽위원회는 2005년 5월에 본 기준에 관한 지령안을 제안했으나 각국의 의견이 대립돼 당초의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EU에서 동물복지의 대치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닭의 건강이나 거기서 생산되는 고기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 AW

홍콩

조류, 인체 독감 주사예방약 아시아에서 실험

AI와 인체 독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항바이러스 제제가 미국 BioCryst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돼 6월 중 아시아에서 인체 실험될 예정이다.

이 항바이러스 제제는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우스, 페렛 동물실험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킨 바 있다.

인체실험은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의 계절적인 독약 치료를 받는 사람이며,

그들 중 절반은 경구 투여를 하고 나머지는 비경구 또는 정맥투여를 할 예정이다.

- 로이터

가나

AI 바이러스 첫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검출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지난 5월 2일 확인했다.

소피아 투완 바리마 가나 WHO 대변인은 기니만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테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H5N1이라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나 보건부의 공공보건처장 조지 아모파 박사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H5N1이 검출된 적은 있으나 가나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 H5N1 바이러스가 첫 검출된 이래 카메룬, 지부티, 이집트, 니제르, 아이보리 코스트, 수단, 부르키나파소 등지에서 H5N1 검출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가나는 아시아와 나이지리아, 아이보리 코스트 등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는 등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섰으나 결국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뉴시스